

■ 자치통감 이야기

두 살짜리를 황제로 세운 끝없는 욕심의 결과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호태후가 명제 원후를 독살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북위에 큰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위의 북해왕인 원호는 남조의 양(梁)으로 투항하여 양무제 소연으로부터 위왕(魏王)으로 책봉되었다. 양으로서의 북위를 괴뢰 정부로 만들고자 한 것이고, 원호는 이를 이용하여 북위의 황제가 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드디어 양무제 소연은 동궁직합장군(東宮直騎將軍)인 진경지(陳慶之)를 파견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원호(元顥)를 호송하여 북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원호가 북쪽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원호는 수양성(雋陽城, 하남성 상구현)에서 단(檀)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햇볕을 밝히고 번오(燔燄)를 지내고 수양성의 남쪽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기원을 효기(孝基)로 까지 고쳤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말든 스스로 황제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낙양으로 향하였는데, 도중에 전투를 벌이기는 했지만 드디어 원호는 낙양궁에 들어갔다. 이주영이 세웠던 북위의 황제 원자유(元子攸)는 도읍인 낙양으로 버리고 산서의 장자(長子)로 철수하였으니, 원호는 실제로 북위의 황제가 된 셈이다. 그러자 다시 기원을 건무(建武)로 고치고, 크게 사면하였다. 또 자기를 도와 준 진경지를 시중·거기(車騎)대장군으로 삼고 식읍 1만 호를 늘려주

었다. 황제 노릇을 한 것이다.

이때에 물론 호태후와 유제를 죽이고 새로운 황제 원자유를 세운 이주영은 원호를 막아야 했다. 그리하여 이주영과 원호는 더불어 황하 근처에서 서로 버렸다. 이주영은 군사력으로 북위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고, 원호는 이에 대하여 남조 양무제에게 기대어 북쪽으로 와서 황제에게까지 오른 사람이다. 누가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었다. 혼란을 안정시킬 사람이 필요 했던 것이다.

그런데 원호는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늘이 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갑자기 고관하고 게으른 뜻을 가지고서 익히 알던 빈객과 근신은 모두 총애를 받아서 정사에 간섭하여 어지럽혔으며, 주야로 방종하고 술을 마시고 군사나 나라의 일을 구휼하지 않았고, 따라서 남방의 군사 자자거리와 향리에서 업신여기고 포학한 짓을 하니, 조야가 실망하였다.

결국은 이주영과 원호의 대결로 가게 되었다. 황하를 사이에 두고 오래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주영은 이주조(爾朱兆)와 하발승(賀拔勝)에게 명령하여 재물을 묶어서 대나무뿔을 만들도록 하고 마저의 서쪽에 있는 협석(峽石, 하남성 맹진현 서부)으로부터 밤중에 황하를 건너서 원호의 아들인 영군(領軍)장군 원관수(元冠受)를 습격하게 하여 그를 사로잡았다. 이주조가 승기를 잡은 것이다.



드디어 원호는 거점을 잃고서 휘하에 있는 수백 명의 기병을 인솔하고서 남쪽으로 달아났고, 진경지는 보병과 기병 수천 명을 거두어 가지고 진영을 결성하여 동쪽으로 돌아오자, 원호가 얻었던 여러 성은 일시에 다시 북위에 항복하였다. 또 이주영에게 쫓긴 진경지의 군사도 죽고 흩어져서 거의 다 없어졌다. 하는 수없이 달려고 수영과 머리카락을 꺾고 살려두고 왕적으로 다담돌이 되리란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원호는 즐거기를 먼저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즐병에게 목이 잡힌 것이다.

원호는 다시 자기를 위왕으로 임명한 남쪽의 양(梁)으로 향하였다. 그래서 환원(轉輓)에서부터 남쪽으로 나와서 임영(臨穎)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따르던 기병들은 갈라지고 흩어졌다. 이리되자 임영현의 병졸인 강풍(江豐)이라는 사람이 간단히 원호의 머리를 베어서 그 수급을 낙양으로 전하였다. 아무리 황제에 올랐다고 하여도 이미 그를 지킬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 힘을 갖지 못하고 양의 도움을 받은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쳐도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 자리를 지킬 능력이 없었던 원호는 즐거기를 먼저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즐병에게 목이 잡힌 것이다.

경주의 중심 혈 반월성



서라벌의 왕경도

8세기 당시의 세계 4대 도시라 하면 바그다드, 콘스탄티노플, 장안, 그리고 서라벌이다. 사진에서 공궤이 보이는 높은 지역이 월성이다. 궤를 기준으로 길고 큰 일직선이 주작대로. 대로는 서라벌을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이 길 끝에는 물이다. 동해에서 배를 타고 안강 호수를 거슬러 오르면 맨 위에 이 대로를 만난다.

외국의 사신과 상인들이 동쪽 끝 나라 신라의 왕경 서라벌에 바로 들어와 큰 길 주작대로 끝에 다다른다. 거기서 마차로 갈아타고 대로를 통해 월성의 왕궁으로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도시 당당한 반월성이 되기까지는 작은 시골에서 출발하여 줄곧 번성한 결과다. 계림의 숲에서 왕국을 열어 3국을 통일하고 천년이나 왕업을 이었으니,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풍수적 고찰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수학계는 아직 길길이 멀어, 연구의 다양성과 폭과 깊이가 부족하여 반월성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풍수해설사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2012년 출간된 '영남택리지'가 처음이 될 것이다. 처음이란 늘 그렇듯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풍수학 발전의 디딤돌이 되리란 믿음으로 그 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위주로 좀 더 손질하여 이번엔 다시 게재한다.



서라벌의 풍수적 핵심지역은 반월성이다. 왕궁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서라벌의 지세에 있어서 변화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혈은 변화의 한 가운데에 놓이기 마련이다. 혈이 바로 태극이요 태극은 변화의 한 가운데 모습이다. 우주가 제아무리 크더라도 변화가 낳은 물질의 결과물이 불과하다. 거꾸로 표현하면 만물은 변화 그 자체이다. 변화의 속성이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물질을 만든다. 그렇게 만드는 변화의 매카니즘이 음양이다.

태초에 혼돈에서 음양이 생겼는데 음양은 강한것과 여린것, 빠른것과 느린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것, 맑은 것과 탁한 것 등으로 갈라지는 것을 말한다. 불규칙과 무질서에서 점차 규칙과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음양의 태동 모습이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점, 혈도 이처럼 음양의 변화 모습을 형상화 한 바로 그 곳이 된다. 만물의 분열과 증폭이 그 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치 우주의 중심부 하나에서 수많은 별

大學 解說 繼續 經文篇

安東權氏 大宗院 宗史研究委員 36世孫 正巖 權懋彰



第二章 新民
2. 湯之盤銘에日(당지반명에월)荷日新(구일신)이어든 日日新(일일신)하고 又日新(우일신)이라하며 康誥에日(강고에월)〈作新民(작신민)이라〉하며, 詩에日(시에월)〈周雖舊邦(주수구방)이나其命維新(기명유신)〉이라하니 是故(시고)로君子(군자)는 無所不用其極(무소불용극)이니라.

第二篇 傳文篇

第一章 明明德
1. 康誥에日(강고에월) 克明德(극명덕)이라하며 太甲에日(태갑에월) 克履天之明命(고시천지명명)이라하며 帝典에日(제전에월) 克明峻德(극명준덕)이라하니 胤自明也(개자명야)

잡뭇을 꾸우치고 殷京 亳로 돌아오자 伊尹이 맞아들이고 太甲 三篇(上, 中, 下)을 지었다고 한다. 지금도 古文尙書에 太甲 세편이 들어있으니 이것은 大學을 비롯하여 禮記의 表記篇(표기편), 緇衣篇(차의편)과 孟子의 公孫丑 上篇 등등에 인용되고 있는 太甲의 原文을 바탕으로 하여 魏(위), 晉代(진대)에 僞作(위작)된 글이라는 것이 定說이다.

인용된 구절의 앞뒤를 살피면 아래와 같다. <伊尹이 作書하여曰, 先王이 顧諟天之明命하시어 以承上下神祇 하시며 社稷宗廟를 罔不祗肅 하신대 天監厥德(천감결덕)하시어 用集大命하시어 撫綏萬邦(무수만방)케 하시니이다.> => (伊尹이 글을 지어 아뢰기를, 先王-湯이 이 하늘의 밝은 命을 지켜보시어 天地의 神祇(신지)를 받드시며, 社稷(사직)과 宗廟(종묘)에 敬虔(경건)히 섬기지 아니함이 없으니 하늘이 그 德을 살펴보시어, 大命을 이룩해주시어 萬邦을 撫安케 하셨나이다.

人間이 하늘로부터 받아 온 明德을 明命이라 일컫는다. 즉 하늘이 부여한다는 위치에서 볼 때는 明命이고 人間이 부여받고 난 뒤의 견지에서는 明德인 것이다. <하늘의 밝은 命을 지켜보라> 고 한 것은 천부적인 人間本來의 德性이 氣質, 人慾 따위에 가려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눈을 돌리라는 것이다. 역시 明德이 昏昧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잘 밝히려는 뜻이다.

<峻德>는 中國 傳說 時代의 聖君인 堯 임금의 德을 말하는데, 그의 德이 光被 四表, 格于上下(德의 光彩가 四方에 번져갔고 天地에 이르렀다.)라고 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克明德>×<顧諟天地明命>×<明明峻德> 등의 인용구는 文王, 堯 임금 같은 聖君의 政治를 하면서 큰 德을 스스로 밝혀 나갔음을 보인 것이니, 明明德은 곧 스스로 의한 스스로의 밝힘이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먼저 인간 본연의 자세에서 큰 德을 훌륭히 밝히는 일을 취해 외서 저마다 스스로가 가진 본래의 德性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킬 수 있고, 또 시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解說: 湯王의 반명에 이르기를 <진실로 날마다 새롭게 하면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 워 진다>고 했으며, 강고에서는 <새로워지는 백성들을 진작시키라>고 했으며, <詩經>에서는 <周나라가 비록 오랜 나라이지만 그 天命은 새롭게만 하다.>라고 읊었으니, 따라서 군자는 그 극을 쓰지 아니할 바가 없다.

註解: ◆湯(탕)→商朝(상조)를 開創(개창)한 임금 成湯(성탕)을 가리킴 姓은 子, 이름은 履(이), 一名 天乙이라고도 함. 탕은 그의 諡號(시호)로서 除虐去殘(제학거잔)과 雲行雨施(운행우시)를 뜻한다고 함. ◆盤銘(반명)→器物에 새긴 글. 盤은 日常에 쓰는 浴器. 또는 祭祀 때에 降神의 儀式 전에 손을 씻는 祭器의 한 가지.

銘(명)은 文體의 한 가지로 여기서는 늘 쓰는 그릇에다 自警하기 위해 새겨 넣은 教訓的인 글. ◆荷(구)→진실로란 뜻, 풀 구, 다란 구, 구차할 구, 겨우 구.

◆詩→詩經을 말함, ◆維→조사로 쓰임, 맹 유, 맺을 유, ◆君子→덕이 있는 사람, 또는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 ◆極→至極한 善, 또는 最上의 法度를 통틀어 일컫음. ◆作→振作, 興起의 뜻, 教化 또는 治의 뜻으로 보는 이도 있음.

◆湯王은 日常에 쓰는 浴器에 <진실로 날로 새롭게 하면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 워 진다>는 教訓的인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하였다. 이 말은 몸 에 묻은 때를 씻어내는 일로 마음의 때를 씻어 德을 새롭게 하는 일을 비유한 것이다. 본래 사람의 몸이 깨끗하듯이 마음도 깨끗하고 밝을 것이리라. 그러나 몸을 나날이 씻지 않으면 때가 끼듯이 마음도 잠깐 닦고 내버려두면 더럽혀지게 마련이다.

경주 반월성의 풍수 흔적

권근호 영남택리지 저자 대구미래대 평생교육원 교수

들이 분화되어 펼쳐진 것과 같은 이치다.

자부는 경주에 갈때마다 매번 감탄한다. 시야에 펼쳐지는 사방의 산과 땅의 모습이 변화의 용틀임이 역력하여 거대한 용광로 속에 놓여진 듯하다. 그 한 가운데에 반월성이 놓여 있다. 사방의 국세는 거칠다가 점차 부드럽고 예쁜 모습으로, 큰 산에서 작은 언덕으로 바뀌는 패턴이 참으로 아름답다.

답사해보면 내로라 하는 길지라 하여도 대개는 예쁜 봉우리가 사방에 우뚝우뚝 솟은 경우는 더러 있다. 물론 거기도 좋기는 하다. 거령 풍수에서 좋다는 굿구친 탐랑의 봉우리로만 구성되면 그 역시 발음은 단편적이다. 하나의 모습은 한 종류의 발복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는 급이 다르다. 먼 산은 거칠고 평범하던 것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산은 오형의 다섯 형태가 분명하게 다 갖추어 있고 또한 예쁘다. 더 가까이는 왕궁의 급에서 나타나는 보성과 월성이 함께 보인다. 이런곳에서만 최고의 대혈을 기대할 수 있다.



반월성

경주문화재 연구소의 '월성지표조사 보고서'에 "반월성의 총면적은 5만 8천여 평, 길이는 동서가 890m 남북이 260m 동서가 긴 반달형이다."라고 하였다. 보고서를 보면 반월성은 지형이 마치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초승달 같다고 하여 신월성(新月城) 또는 월성(月城)이라고도 한다. 임금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에서 재성(在城)이라 불렀던 것을 조선시대에 와서 반월성(半月城)이라 흔히 칭하였다.

석씨(昔氏)시조 탈해왕(脫解王)(재위 서기57-80년)의 왕궁이 있던 곳이다. 월성은 석탈해 왕이 임금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살았는데, 임금이 된 후에 왕궁으로 사용되어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까지 약 백년간 신라를 다스리던 곳이다.

궁성의 모습은 자세히 전하지는 않으나, 성분으로는 남문·북문·귀정문·임해문·현덕문·무령문·준례문 등이 있었고, 4대 현강왕(憲康王)이 신하들과 더불어 서울(경주)을 굽어보며 태평성세를 부르던 조원전·망은루 등의 누각들, 임금이 정사를 논의하던 주월전·송례전을 위시하여 많은 전각들이 처마를 맞대어 있었다 한다.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신라 4대왕묘 석씨의 최초 왕이다 '삼국유사'에 반월성의 초기 기사가 나온다. 탈해가 아직 왕위에 오르



탈해왕릉(사적 제174호)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신라 4대왕묘 석씨의 최초 왕이다 '삼국유사'에 반월성의 초기 기사가 나온다. 탈해가 아직 왕위에 오르

漢詩작법과 名詩감상 I

東峰 權洪燮 僕射公派 野翁公系34세



韻字를 넣어서 作成한 글을 韻文이라 稱한다. 부시(賦詩)에는 말할 것도 없고 千字冊에 보면 첫머리에 '天地玄黃

第1章 概論

第1節 言志
漢詩는 言志이며 韻文이다. 이 兩大根幹으로 한 首의 詩를 지탱(支撐)시킨다. 言志란 뜻을 內自하고 있는 文言이니 元來 各人의 意思를 표현한 格言 名談 歌謠 등에서 비롯되었다. 다시말해 어떤 계기로 事物에 接하여 일어나는 心情을 읊는 것이다.

詩는 言志(자기의 뜻을 말하다.)이며 歌는 永言(말을 길게 함)이라고도 한다. 詩傳 序文에서 朱子께서 말하기를 詩者는 '心之感於物 而形於言之餘也'라고 했으니 詩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事物에 感動되어 말로써 다 못하는 部分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漢詩라고 하면 漢字로 構成된

하고 宇宙洪荒하니 日月盈昃(영축)하고 辰宿列張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 黃·荒·張·字 등이 韻文을 構成하는 韻字로서 陽聲에 속한다. 數 많은 漢字에는 반드시 저마다의 韻이 있으며 同一字라도 뜻이 바뀌거나 字音이 변하면 그 소리에 따라 韻도 바뀐다.

時代에 따라 韻書가 여러차례 補充되었는데 中國에는 '廣韻' '集韻' '韻會' '正韻'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四聲通攷' '東國正韻' '四聲通解' 등이 있었으니 完壁하지 못하여 正韻年間에 王命으로 文臣 丁若鏞이 編次한 '奎章全韻'이 正本으로 確定되어 이 韻書에 의하여 지금까지 通用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